

美 6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

1. 고용 지표

- '15.6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2.3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3.3만명)를 하회하였으며 직전 취업자수 증가폭도 하향조정 (5월: 28.0만명→25.4만명)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22.3만명**(예상치 +22.5만명) 증가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전월과 동일
 - 업종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주요업종이 전월대비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여가·호텔 분야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반면 도소매, 운송·창고 부문은 소폭 확대
 - 임시직은 4개월 연속 증가
 - 직전 2개월치('15.4~5월중) 취업자수도 민간·정부부문 총 **6.0만명** 하향조정
 - 민간부문은 **2.9만명** 하향조정
 - 4월: 1.7만명 하향(+20.6만명 → +18.9만명), 5월: 1.2만명 하향(+26.2만명 → +25.0만명)
 - 정부부문도 **3.1만명** 하향조정
 - 4월: 1.7만명 하향(+1.5만명 → -0.2만명), 5월: 1.4만명 하향(+1.8만명 → +0.4만명)
- 경제활동참가율(5월 62.9% → 6월 62.6%*)이 0.3%p 하락하였으며 실업률(5.5% → 5.3%)도 0.2%p 하락
 - * 1977.10월(62.8%) 이래 최저치
 -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은 10.5%로 전월(10.8%) 대비 0.3%p 하락
- 주당 평균노동시간(34.5시간)은 4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시간당 평균임금(24.95달러, 전월치 0.01달러 하향조정)은 전월과 동일하여 임금상승률(0.0%)이 시장 예상치(+0.2%)를 하회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단위: 천명)			
	'14.6월	'15.4월	5월	6월
■ 非농업 전체	286	187	254	223
- 민간 부문	272	189	250	223
(건설)	7	30	15	0
(제조)	23	0	7	4
(도소매)	52.1	6.9	31.7	32.7
(운송·창고)	11.7	11.5	12.2	17.1
(교육·의료)	43	54	56	50
(여가·호텔·식당)	31	8	54	22
(임시직)	14.4	10.8	17.2	19.8
- 정부 부문	14	-2	4	0

2. 금융시장 반응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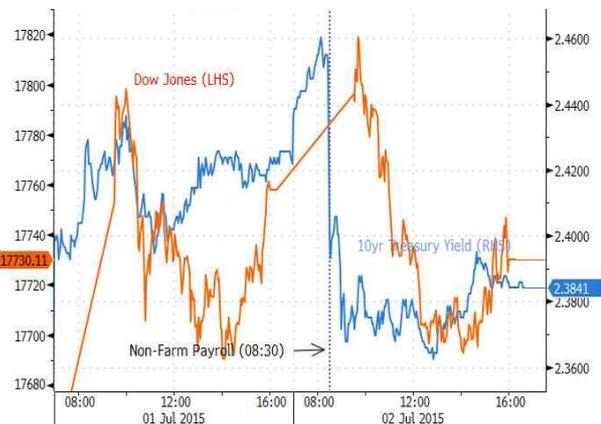
-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및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직전 2개월 취업자수가 상당폭 하향조정된 점이 고용시장 개선 기대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리와 주가는 하락, 미달러화는 약세
- 미국채(10년물) 금리는 지표 발표 후 큰 폭의 갭 하락(7.5bp)을 보였으며, 이후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시장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등락을 반복하다 하락폭을 축소하여 마감
- 주가(다우지수)는 개장 직후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시장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지표 발표로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좀 더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데다 주말 그리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투자 경계감이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
- 미달러화는 고용지표 발표 전 개선 기대감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다가 지표 발표 후 급격히 강세폭을 축소 또는 약세로 전환하여 마감
- 금가격은 장 초반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표 발표 후 낙폭을 축소하여 보합 마감하였으며, 유가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 미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나 원유채굴장비(rig count)가 지난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 반전하여 마감

주요 금융지표 동향

		'14년말	'15.6말	7.1	7.2 ¹⁾	전일 대비
미국채	2년물	0.66	0.64	0.69	0.63	-6bp
	10년물	2.17	2.35	2.42	2.38	-4bp
주가	다우	17,983	17,620	17,758	17,730	-0.2%
	S&P 500	2,080	2,063	2,077	2,077	-0.0%
환율(\$/€)		1.2104	1.1147	1.1053	1.1083	+0.3%
금(\$/온스당)		1,182	1,172	1,169	1,167	-0.2%
WTI US/bbl		53.3	59.5	57.0	56.5	-0.7%

주: 1) 뉴욕 16:30분 기준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중변동 추이



(월가의 평가)

□ 실업률은 하락하였지만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 직전 2개월 취업자수가 상당폭 하향조정되고 노동시장참가율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도 전월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6월 고용지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다수

- 다만, 3개월간 평균 취업자수 증가치가 22.1만명 수준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지속가능한 개선세(sustainable trend)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9월 정책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당수 투자은행들이 기존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

(JP Morgan) 6월 고용시장참가율이 상당폭 하락하였지만 10대의 고용시장 이탈이 많았고, 전통적으로 장기실업자의 실망 이탈이 많았던 데 비해 6월에는 취업자의 이탈이 많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한편, 실업률은 5.3%로 6월 연준 경제전망(SEP)의 2015년 실업률 전망(5.2~5.3%)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시간당 임금이 전월 수준에서 정체되었으나 2사분기 평균 임금상승률(2.2%, YoY)은 최근 2~3년간의 추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시장 개선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을 의미하는 6월 실업률 하락은 연준의 9월 금리인상을 강하게 지지(reinforce)할 것으로 예상

(BoA Merrill Lynch) 6월은 방학(school year end)으로 인해 계절적으로 고용지표 변동(swing)이 심한 달이며 정부부문의 낮은 일자리 증가는 교사직의 감소를 반영.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낮고 고용시장참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Morgan Stanley)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른 임금 지표에서 나타났던 최근의 상승세와 엇갈리면서 임금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움. 6월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에는 못미쳤지만 이는 5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 데 대한 반작용(payback)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2~3개월간 고용지표는 6월보다 나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Wells Fargo) 취업자수 증가폭이 하락하였지만 연간 평균 전망치(21.6만명)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취업자수 증가 추세(연율 약 2%)가 취업연령대 인구증가율(약 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 하락은 지속될 전망. 다만, 실업률 하락이 시간당 임금을 견인하고, 고용시장 개선으로 고용시장참가율이 증가하는 경기확장기 중반(mid-cycle of expansion)의 전통적인 패턴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다소 특이한 결과. 6월 고용시장참가율 하락과 임금상승률 정체의 영향으로 연준은 7~8월 고용지표를 통해 좀 더 강한 성장세를 확인하고자 할 것임

(Barclays) 2015년 하반기중 평균 취업자수 증가는 22.5만명으로 예상.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용시장참가율이 크게 상승(surge)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6월 고용시장참가율 감소는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연준이 시간당 임금의 정체를 아직 노동시장에 slack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